

#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 언어와 문학

자꾸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도로, 병원, 혹은 계산대 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려야 할 때 지루해서 안달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중에 자녀가 읽기 능력이 준비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 이야기하고 들어주세요.

유아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녀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유아는 부모님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관심이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문장 또는 몇 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이라고 할 때까지 모든 가족들이 교대로 한 문장 또는 몇 줄을 더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거나 좋아하는 시를 함께 읊는 것은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자녀의 언어를 너무 자주 수정해주면 아이가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이가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주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 ★ 노래하고 운율을 맞추어 보세요.

노래와 운율은 유아가 소리와 언어 패턴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도울 수 있습니다. 반복이 많은 시와 노래를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유아들은 알파벳노래를 좋아합니다. 종이에 알파벳을 적어주면 당신이 노래할 때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 주위의 메시지를 찾아 보세요.

자녀가 당신이 보는 문자, 단어, 숫자, 상징을 찾도록 도와 주세요. 유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유아들은 회사나 스포츠 팀 로고를 재빠르게 인식합니다. 문자, 숫자, 상징을 조금 아는 유아의 경우에는 'I Spy'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아이가 교대로 주위에 있는 문자와 상징을 찾습니다. “마카로니의 M 자가 보여. 너도 찾을 수 있겠니?” “시카고볼스 농구팀의 상징이 보여요. 엄마도 찾을 수 있나요?”

## ★ 적어주세요.

부모와 자녀가 읽고 싶은 책, 사야 할 음식, 부모 주위에 있는 사물, 문제를 푸는 방법 등, 함께 '브레인스툼'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지어 말하면 부모가 그 말들을 받아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삽화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멀리 있는 친척 또는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말로 하면 받아 적어줄 수 있습니다.

## ★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당신의 핸드백, 가방, 혹은 기저귀 가방 속에 아동 도서 두세 권을 넣어 다니세요.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자동차에도 책이나 잡지를 몇 권씩 두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주의: 유아가 멀미를 잘한다면 움직이는 차 안에서 책을 보서는 안됩니다!) 자녀와 볼일 보러 갈 때 도서관 또는 서점에 들리는 습관도 기릅니다.

★ <http://illinoisearlylearning.org/tips.htm> 에 접속하시면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언어와 문학” 페이지에서 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nglish Title: Things to Do while You're Waiting: Language and Literacy**



29 Children's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51 Gerty Dr. • Champaign, IL 61820-7469  
Telephone: 217-333-1386 • Fax: 217-244-7732  
Toll-free: 877-275-3227 (Voice/TTY)  
Email: [iel@uiuc.edu](mailto:iel@uiuc.edu)  
Internet: <http://illinoisearlylearning.org>

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